

Coriolanus의 長短과 功過

—Qualities and Defects of Coriolanus—

全 濟 玉

序

I. 貴族 對 平民

II. Menenius와 Sicinius

III. 母子關係

IV. 敵將과의 對決

結

序

*Coriolanus*는 Shakespeare의 悲劇 11篇 中 마지막 것으로 大略 1608~10年頃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C. 5世紀頃の Roma의 한 將軍에 關한 이야기로 source book은 Plutarch의 英雄傳이다.

*Coriolanus*는 政治劇이며 主人公 한 사람의 背景 性向 功勞 誤判 지나친 自慢心 때문에 그 自身뿐만 아니라 當時 Roma의 國運이 左右되며 榮枯盛衰가 點綴되는 悲劇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어려서부터 깊이 심어진 自尊心은 戰場에서 勝利를 얻어 가면서 더욱 스스로를 完全無缺한 것으로만 믿게 되고 自己以外 모든 사람들에 對해 蔑視와 賤待가 지나쳐 짐승이나 버러지같이 여김으로서 窮地에 몰리게 되어 祖國에서 逐出되자, 그 前에 自己가 敗北시켰던 敵將 Aufidius와 合作하여 祖國 Roma의 陷落을 一步 앞에 두었으나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 子息 앞에 무릎꿇고 泣訴하니 그는 그릇된 初志를 貫徹시키지 못하고 自滅의 길을 스스로 擇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悲劇이 單純히 그의 生來的인 또는 어머니의 敎訓에 依한 自慢心이 저지른 罪過라고만 할 것인가? 여기서는 Roma의 政治 軍

p
A20
Se61h
1979
C.5

事 社會 等 各分野를 通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I. 貴族 對 平民(Patricians vs Plebeians)

爲先 劇中人物들의 相互關連性을 言及하기에 앞서 社會相을 알아보면, 當時 Roma에는 貴族인 patrician이 支配層으로 이들은 戰場에서 세운 功勳에 依해서 職位가 授與되고 모든 政治的 特權을 享有할 수 있었으며, 그 反面 plebeians는 庶民 賤民 俗人 劣等民이란 뜻을 內包한 것으로 被支配層인 平民을 말하며 一般大衆들이 이 階級에 屬해 있었으나 이들中에는 貿易에 從事하여 많은 助力을 蓄積하기도 했다.

當時에 貧富의 差異가 顯著해졌는데 元老院(Senate)은 貧者보다는 富者편을 들게 되었다. 戰爭이 나면 없는 사람들을 앞세워 보내며 싸움에 이기면 民權을 恢復시켜 주겠다고 約束은 하였으나, 勝戰後에는 이런 言約이 지켜질 理가 없고 한날 空文書가 되고마니 一般大衆들의 國家에 對한 反抗心은 漸高되어 마침내 組織化 될 무렵, 饑餓線上에 놓인 이들의 苦衷을 無視하던 Coriolanus가 이들의 攻擊對象이 된 것은 偶然한 일 은 아니었다.

Caius Marcius Coriolanus는 勿論 貴族에 屬하며 貴族中에서도 그는 王族出身이다.

What stock he springs of,
The noble house o' the Marciaus, from whence came
That Ancus Marcius, Numa's daughter's son,
Who, after great Hostilius, here was king;
Of the same house Publius and Quintus were,
That our best water brought by conduits hither;
And Ceusorinus nobly named so,
Twice being by the people chosen censor,
Was his great ancestor

(II. 3. 233~241)

Marciaus家系를 보면 Numa王의 外孫으로 自身도 王이 된 Ancus Martius의 家門을 이어 받은 勢力이 莫強한 貴族으로, Roma의 有名한 監察官이었던 Censorinus도 이 家門이었다.

그는 父親과 일찌기 死別하여 片母膝下에서 成長하였는데, 이런 環境에서 遠大한 目標을 세우고 邁進하려는 母子에게는 庶民들의 苦衷이나

그들의 所願이 무엇인가를 알려고도 또한 알아서도 쓸데 없었다. 그저 大衆이란 구차스러운 存在로서 그들 貴族들을 괴롭히고 있는 무리들로 밖에는 認識하지 못하였다. 追求하는 바는 名譽 自尊心 權威 威信 등이었고 그밖에 難民救濟 大衆福祉 같은 것은 念頭에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그 當時만해도 平民들中에서 그들의 代表를 뽑아 護民官(tribunes)이란 代議員階層이 組織되고, 國家의 行政立法 選舉 등에 關與할 수 있는 것이 當時 Rome의 執政形態였는데, 本是 平民들을 賤視 忌避하던 Coriolanus는 비록 歷戰의 名將이고 祖國守護의 干城이라 할지라도 執政(Consul)의 役은 그에게는 걸맞지도 可當하지도 않는 것이었으니 이 大任을 負荷시키는 것은 社會的 政治的 側面으로 볼 때 처음부터 悲劇的 終末이 孕胎되어 있음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한편 賤民들의 切實한 要求와 그들의 怨聲이 어느 程度였는가는 이 劇의 序頭에 잘 나타나고 있다.

First Citizen. Before we proceed any further, hear me speak.

All. Speak, Speak.

First Cit. You are all resolved rather to die than to famish?

All. Resolved, resolved.

First Cit. First, you know Caius Marcius is chief enemy to the people.

All. We know't, we know't.

First Cit. Let us kill him, and we'll have corn at our own price. Is't a verdict?

(I. 1. 1~10)

饑餓狀態에서 食糧을 要求하는 庶民들의 絶叫이 그 原因을 Coriolanus에게 돌리고 그를 民衆의 敵으로 殺害함으로써 그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確信하고 있다.

이때 이런 騷動이 날만한 것은 貴族들의 倉庫에는 多量의 穀物이 山積되어 있으나 價格騰貴로 庶民들의 입에 가지 糧道를 이을 수 없게 되니 그들의 奮怒는 더욱 加重 助長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留意할 것은 Shakespeare는 一般大衆들의 便을 들지않고 오히려 貴族들의 생각으로 기울고 있는데 大衆蜂起는 그가 좋아 하지않는 것이고 大多數議決같은 것도 생각할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當時 Roma에서도 治者의 政治觀은 百姓들을 자식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으니 東洋에서 말하는 「欲爲大者 當爲人役」이라는 語句와도 類似하다 하겠다. 萬若 Coriolanus가 武道만이 아니라 德將이 되는 길을 익

히고 治者의 道理를 練磨하였던들 그는 名將인 同時에 名宰相이 되었을 것이나 이것은 한낱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現代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文武兼全이니 하지만 그런 例는 極히 稀貴하다 하겠다.

II. Menenius와 Sicinius(Menenius and Sicinius)

古來로 贊反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게 마련이다. Coriolanus를 中心으로 볼때, 그의 친구 Menenius는 積極的으로 그를 支持하고 輿論을 善導하려드나, 反對派인 護民官 Sicinius는 그의 弱點이나 缺點만을 露出시키게 함으로서 大衆들을 煽動하기에 汲汲한다.

Menenius는 Coriolanus와는 달리 大衆들의 人氣가 대단하고 그들의 支持를 얻은 사람이다. 그는 Coriolanus의 缺點보다는 將軍으로서의 卓越함과 勇敢性 또는 Roma를 爲해서 몸바치는 그의 굳은 決意를 높이 尊敬하고 있다.

大衆蜂起가 나타나자 이때 Coriolanus單身이 市民全體를 相對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上官인 Cominius를 爲始하여 親舊인 Menenius 등이 그를 擁護하고 市民들을 鎮靜시키느라고 努力한다.

There was a time when all the body's members
 Rebelled against the belly; thus accused it:
 That only like a gulf it did remain
 I' the midst o' the body, idle and unactive,
 Still cupboarding the viand, never bearing
 Like labour with the rest; Where the other instrument
 Did see and hear, devise, instruct, walk, feel,
 And, mutually participate, did minister
 Unto the appetite and affection common
 of the whole body.

(I. 1. 94~102)

奮怒한 大衆들에게 Menenius가 比喻로 腹部와 身體의 다른 部分과의 關係를 들었으니 뜻있는 말이다. 다함께 各其處所에서 所任을 行함으로서 均衡있는 身體發育을 期할 수 있지 서로 헐뜯고 誹謗만 일삼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思慮깊은 그가 條理있고 紹詳하게 大衆들을 理解시키려 한다. 그러나 Coriolanus는 無禮한 暴言만을 늘어놓아 그들의 敵對感만을 助長시켰을 뿐이다.

Menenius는 누구보다도 Coriolanus가 執政이 되기를 바랐고 그러기
爲해서 모든 努力을 하며 反對派들을 撫磨하는데도 盡力한다.

Men. Ay, to devour him; as the hungry plebeians would the noble Marcius.

Bru. He's a lamb indeed, that baes like a bear.

Men. He's a bear indeed, that lives like a lamb. You two are old men:
tell me one thing that I shall ask you.

Sic., Bru. Well, sir.

Men. In what enormity is Marcius poor in that you two have not in
abundance?

Bru. He's poor in no one fault, but stored with all.

Sic. Especially in pride.

Bru. And topping all others in boasting.

Men. This is strange now: do you two know how you are censured here
in the city, I mean of us o' the right-hand file? do you?

(II. I. 9~22)

大衆에 對한 Coriolanus의 姿勢를 좀 부드럽게 하도록 하며, 戰場에서
입은 20個가 넘는 傷處를 大衆에게 보임으로써 市民들의 熱烈한 歡呼와
支持를 얻게해 보려고 애쓰나, Coriolanus가 이에 應할 理가 없다. 그는
自己의 堂堂한 戰鬥精神과 榮光된 負傷은 祖國守護를 爲해서 이룩한 것
이지 그것이 決코 賤民들에게 보여서 그들의 支持를 얻어, 名譽만을 尊
重해야될 그가 結果的으로 平民들에게 阿諛하는 꼴이 되는 것은 到底히
容納될 수 없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에 생각나는 것은 Titus Andronicus로 Goth와의 戰爭에서 勝利하여
還國할 때 그의 동생이 그를 皇帝에 推戴할 것을 提言하나, 自己는 軍
人으로서 滿足하니 帝位는 前皇帝의 아들에게 讓步하고 다만 그를 自己딸
의 配匹로 定하는데(勿論 그다음부터 豫期하지도 않은 殺戮戰이 벌어져
文字그대로 Seneca式의 悲劇으로 流血과 恐怖가 繼續되고 만다) Coriol-
anus도 自己의 性稟이나 心理를 잘 把握하고 있다면 執政이란 自身이 履
行할 수 없는 職務이며 市民과의 接觸은 더욱 不可能한 일이라 斷定하고
아무리 他意에 依한 薦擧라고 하더라도 이를 決然히 拒絕했어야만 했다.

勿論 그가 執政자리만 受諾하지 않았더라면 每事가 順理로 進行되었
으리라고 想像하기 어려우며 敵侵을 擊退시킨 功보다 더 큰 것이 없는
만큼 그가 市民들과의 接觸을 免한 道理가 없고 그렇다고 그가 이들과
迎合하리라는 것도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事實을

잘 알고 있는 Menenius는 그를 歡迎하면서도 內心 저으기 근심하고 있다.

A hundred thousand welcomes. I could weep,
 And I could laugh; I am light and heavy. Welcome!
 A curse begin at very root on's heart
 That is not glad to see thee! You are three
 That Rome should dote on; yet, by the faith of men,
 We have some old crab-tree here at home that will not
 Be grafted to your relish. You welcome, warriors!
 We call a nettle but a nettle, and
 The faults of fools but folly.

(II. 1. 180~187)

Coriolanus가 凱旋歸國한 後 Cominius와 Menenius 등이 積極 薦舉하여 그의 人氣는 매우 높아져 그의 執政當薦은 確實視되나, 한편 그를 本來 좋아하지 않으며 그의 本性을 잘 알고 있는 사람中에는 護民官인 Sicinius와 Brutus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Sic. On the sudden,
 I warrant him consul.
 Bru. Then our office may,
 During his power, go sleep.
 Sic. He cannot temperately transport his honours
 From where he should begin and end, but will
 Lose those he has won.

(II. 1. 217~223)

그가 權座에 오르게 되면 被支配層을 完全無視하고 唯我獨尊으로 모든 施策을 펴나가게 될 것이 틀림없으니 그가 國民들과 融合될 수는 到底히 없고 그렇다고 그가 讓步할 氣勢도 조금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絶對的인 鬭爭이 不可避한 것으로 豫見한다. 그러므로 묻었던 불씨를 다시 살려서 그를 다시 大衆의 敵으로 몰아 부치도록 애쓴다.

두 官吏들이 주고 받는 對話에서도 Coriolanus의 性格은 如實히 나타나고 있는데

First Off. If he did not care whether he had their love or no, he waved indifferently 'twixt doing them neither good nor harm; but he seeks their hate with greater devotion than they can render it him, and leaves nothing undone that may fully discover him their opposite. Now, to seem to affect

the malice and displeasure of the people is as bad as that which he dislikes, to flatter them for their love

Sec. Off. He hath deserved worthily of his country; and his ascent is not by such easy degrees as those who, having been supple and courteous to the people, bonneted, without any further deed to have them at all in their estimation and report; but he hath so planted his honours in their eyes and his actions in their hearts, that for their tongues to be silent and not confess so much, were a kind of ingrateful injury; to report otherwise, were a malice that, giving itself the lie, would pluck reproof and rebuke from every ear that heard it.

(II. 2. 15~32)

그는 市民들에게 굽실거리거나 阿附하는 일 外에는 아무 業績도 없는 흔히 볼 수 있는 徒輩들과는 判異하게 누구도 否定할 수 없는 燦然한 業績과 功勞가 있으나, 市民들의 비위를 맞춘다거나 呼應하는 일은 커녕 오히려 그들의 氣分을 傷하게 하고 興奮시키거나 蔑視하는 일만 골라하는 缺陷이 있으므로 마침내 大衆의 敵이란 소리를 免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Coriolanus는 支持者들의 積極的인 活動으로 執政職을 얻게는 되나 多數의 大衆들이 敵對視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險惡하고 波瀾이 높을 것은 淸사리 짐작되고, 이 世波를 헤쳐나갈 수 있을가 하는 것이 그의 앞날의 課題다.

Ⅲ. 母子關係(Volumnia vs Coriolanus)

이 劇中에 나타나는 세 女人中 어머니 Volumnia가 가장 두드러진다. Virgilia는 男便의 出征에 썩 마음 아프고 애처러워하는 賢母良妻일지는 몰라도 男便에게 이렇다할 影響力이 전혀 없고 嚴格한 媼母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다. Virgilia의 親舊인 Valeria도 夫人의 親舊일 따름 Coriolanus와는 相距가 멀었다.

Vol. I pray you, daughter, sing, or express yourself in a more comfortable sort. If my son were my husband, I should freelier rejoice in that absence wherein he won honour than in the embracements of his bed where he would show most love. When yet he was but tender-bodied and the only son of my womb, when youth with comeliness plucked all gaze his way, when for a day of king's entreaties a mother should not sell him an hour from her beholding, I, considering how honour would become such a

person; that it was no better than picture-like to hang by the wall, if renown made it not stir, was pleased to let him seek danger where he was like to find fame. To a cruel war I sent him; from whence he returned, his brows bound with oak. I tell thee, daughter, I sprang not more in joy at first hearing he was a man-child than now in first seeing he had proved himself a man.

Vir. But had he died in the business, madam; how then?

Vol. Then his good report should have been my son; I therein would have found issue. Hear me profess sincerely: had I a dozen sons, each in my love alike, and none less dear than thine and my good Marcius, I had rather had eleven die nobly for their country than one voluptuously surfeit out of action.

(I. 3. 1~25)

Volumnia의 人生觀이 잘 表現되었으니 사람이란 名譽를 얻어야 되며 名譽는 싸움터에서 勇戰 奮鬪함으로써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敗北 보다는 오히려 멋뻐서 戰死할 것을 바란다는 心理인 것이다. 卽 어떤 難關이라도 뚫고 들어가 最後의 目的인 名譽를 爭取할 때까지는 굳은 決意로 邁進해야만 된다는 것이 어머니의 強硬한 教訓인데, 片母膝下의 아이들이 不利한 點 또는 社會에서 자칫하면 버림받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正直하고 勇敢하며 다른 아이들보다 德望도 있게 키워보겠다는 굳은 決意를 實行한 것으로, 좋게 보면 子息에 對한 極盡한 母性愛라고 할 수 있으나 反面에 偏見 猜忌 等 正常的인 思考方法을 離脫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後에 Coriolanus가 외길만 따르다가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늦을 것이라는 事實은 決코 알지 못한다. 名譽가 올바르게 간직되려면 큰 名譽는 個人의 所有로 할 수 없고 社會나 國家에 奉仕하는 것으로 돌릴때 永久히 간직될 수도 있고 또한 萬人의 崇仰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릇된 名譽가 자라면 傲慢이 되고 또한 獨裁獨斷하는 무서운 橫暴를 낳고 더 나아가서 排外的이며 自己中心的으로만 事物을 處理하게 되니 他人과 融和를 圖謀하기는 커녕 모든 사람들을 敵對視하고 凌蔑하게 되니 그 結果는 自身の 破滅과 亡身을 招來하고마는 것이다.

그에게 이와같은 어머니의 信念이 깊이 注入되어져, 어려서부터 戰鬪에서 頭角을 나타내어 漸次 名聲이 높아져 그의 存在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名譽만을 追求하는 나머지 戰場에서의 掠

奪品이나 平民들의 歡呼같은 것은 完全히 輕蔑하거나 無視해 버렸다.

여기에 問題가 생겼으니, 自身을 完全無缺한 人格과 品位를 갖춘 사람으로 確信하게 되고 모든 平民들은 眼中에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그가 交際한 階層은 貴族들로 一定한 階級以上이라야만 人間待遇를 할 수 있었고 그밖의 一般庶民層은 그에게 괴로움만 주는, 動物이나 草介같은 存在로만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實際로 그가 勇戰한 데 比하면 이들은 恒時 卑怯함을 나타냈고 늘 救援해 달라는 손길만 뻗었으니 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나아가서 民衆의 人權같은 것도 決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平民들과는 出身이 다르고 教養背景이 判異하며 透徹한 어머니의 教育方針이 特出했던 그가 將軍으로는 完全無缺함을 보이고 다른 사람과 妥協이나 讓步하는 것은 念頭에도 없으며 融通性없이 率直淡泊과 直線의인 思考 그리고 行動의 完璧함은 그나름대로 힘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戰場에 나아가 몸바쳐 싸워 勝利를 얻은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名譽로운 行動임에는 틀림없었으나, 그에게는 이 目的이 個人的 榮達이나 높은 地位에 到達하는 利己의 手段이 될 뿐이었으니, 그 悲劇이 바로 立身揚名속에 潛在해 있었다 하겠다.

이마 Coriolanus는 自己 마음 먹은대로의 目標를 向하고 있으나 그것은 大衆들의 길과는 正反對의 向方일 뿐이다.

He that will give good words to thee will flatter
 Beneath abhorring. What would you have, you curs,
 That like nor peace nor war? The one affrights you,
 The other makes you proud. He that trusts to you,
 Where he should find you lions, finds you hares;
 Where foxes, geese: you are no surer, no,
 Than is the coal of fire upon the ice,
 Or hailstone in the sun. Your virtue is
 To make him worthy whose offence subdues him,
 And curse that justice did it. Who deserves greatness
 Deserves your hate; and your affections are
 A sick man's appetite, who desires most that
 Which would increase his evil. He that depends
 Upon your favour swims with fins of lead,
 And hews down oaks with rushes. Hang ye! Trust ye?
 With every minute you do change a mind,
 And call him noble that was now your hate,

Him vile that was your garland. What's the matter,
That in these several places of the city
You cry against the noble senate, who,
Under the gods, keep you in awe, which else
Would feed on one another? What's their seeking?

(I. 1. 165-186)

當初부터 不平不滿에 차있는 平民들의 眞意與否를 찾으려 들지도 않고, 大衆들의 卑屈脆弱함과 모든 缺點만 列擧할뿐 아니라 이들을 人間以下로 薄待함을 例事로 여기니 아마 그의 腦裏에는 가난救濟는 國家도 無爲라는 觀念이 支配의이고 따라서 無智한 大衆은 채찍질해서 使役시키는 것을 最上으로 여긴 모양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가 國家防衛에 세운 功績은 너무도 크고 또한 平素 그를 支持하는 이들의 努力으로 執政에 까지 選任되나 戰場에서 입은 自身の 傷處조차 끝내 보이지 않아 그에 對한 無理한 人氣回復도 漸時이며, 더구나 그의 反對派들의 煽動으로 大衆과의 距離는 急速히 멀어지고 指導者나 國家를 代表할 수 있는 人物로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困境에 있어서도 Volumnia는 아들을 改過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追放하고자 앞장선 護民官을 한결같이 詛呪하지만 그 나름대로 臨機應變할 줄도 알고 伸縮性같은 것도 쏠려 없지는 않으나, 어머니의 가르침에만 따랐던 Coriolanus는 이런 面에는 어머니보다 못할뿐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더욱 큰 어려움을 헤쳐나가기에는 不足하다 하겠다.

그는 執政職을 얻는 것이 어머니의 所願이라는 것을, 또 어머니께 子息의 稱讚을 들려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孝道이며 名譽로운 일로 알고 있으므로, 賤民들이 우글대는 市場에도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마지못해 다시 나갈뿐 如前히 平民들이 自己를 選任해줄 것에는 조금도 마음이 없다. 直線的이고 굽힐 줄 모르는 그의 名譽心, 다른 階級사람들을 全的으로 無視하는 그의 習性은 最高官職에 選任되에도 如前하니 摩擦은 避할 道理가 없다. 大衆을 包攝하거나 衆論의 所在가 무엇인지조차 알려하지도 않고 그들을 統治하려함은 맨몸으로 敵陣에 突入하는 것보다 無謀한 짓일 뿐이다.

結局, Coriolanus는 自己가 受容되지 않는 祖國을 등지고 復讐心에 불

타며 自身이 敗退시켰던 敵將을 찾아가니 背叛當한 祖國에 報復해야만 心性이 풀리겠다고 생각하는 그의 立場이 絶望的인 것으로 先後를 두루 살필 餘暇조차 주어지지 않은듯 하다.

그러나 嚴格하게만 가르치던 그의 어머니가 子息앞에 무릎꿇어가며 陷落直前의 Roma의 救出을 泣訴하니 母情앞에서는 그도 어찌 할 수 없게 되어 Roma는 破滅을 免하게 되나 스스로는 죽음의 길을 擇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Volumnia의 教訓의 功過가 同時에 나타난 것이며 또한 Coriolanus도 將軍으로서의 長短點이 같이 發揮하였다고 볼 수 있다.

Behold, the heavens do ope,
The gods look down, and this Unnatural scene
They laugh at. O my mother, mother! O!
Yon have won a happy victory to Rome;
But, for your son, believe it, O, believe it,
Most dangerously you have with him prevailed,
If not mortal to him.

(V. 3. 183~189)

IV. 敵將과의 對決(Coriolanus vs Aufidius)

根本적으로 平民들을 無視한 Coriolanus가 民衆의 敵으로 몰리는 窮地에 빠지나, 때마침 Volscies인들이 Tullus Aufidius를 앞장세워 Roma를 侵略하려들자 元老院은 Coriolanus를 總司令官에 任命하니 그에게는 平素의 所願을 成就시킬 絶好의 機會가 옴과 同時에 어머니가 바라고 願했던 凱旋將軍이 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되었다.

First Sen. Marcius, 'tis true that you have lately told us;
The Volsces in arms.

Mar. They have a leader,
Tullus Aufidius, that will put you to't.
I sin in envying his nobility,
And were I anything but what I am,
I would wish me only he.

Com. You have fought together?

Mar. Were half to half the world by the ears, and he
Upon my party, I'd revolt, to make
only my wars with him: he is a lion
That I am proud to hunt.

(I. 1. 225~233.)

Coriolanus가 傲慢無禮하나 한편 將軍으로서는 온 國民이 다 함께 稱頌할만큼의 名將으로 그가 戰場에 나아가면 早晚間 勝利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疑心할 수 없을 程度였다.

그런데 敵將 Aufidius 亦是 그가 平素 一戰하기를 바랐던 名將이니만큼 이 一戰의 勝敗는 Roma 全體의 興亡이 걸렸다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 戰爭은 Coriolanus 혼자만이 치룬 것이 아니라 여러 將軍들도 出征하였으나 그 功이 모두 그에게 돌려질만큼 그는 人氣를 지니고 있다.

Vir. Heavens bless my lord from fell Aufidius!

Vol. He'll beat Aufidius, head below his knee,

And tread upon his neck.

(I. 3. 45~47)

Coriolanus는 同僚將軍인 Titus Lartius와 함께 進擊하여 敵陣을 뚫고 敵都 Corioli에 入城하고는 勢不利한 上官인 Cominius에게도 援軍을 보낸다. 그러나 勝利를 거두었지만 Coriolanus는 많은 負傷을 입었고 敵將 Aufidius와 對決을 하였으나 끝맺음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그는 敵都 Corioli 陷落의 功으로 執政 Comenius에게서 Coriolanus라는 異名을 받으며 Roma 百姓들이 그의 勇敢을 讚揚하나, 그는 모든 讚辭와 物質的인 報酬를 輕蔑하고 自己는 다만 所任을 完遂했을 따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決코 그가 謙虛한 姿勢로 勝戰의 榮光을 國民에게 돌리는 態度와는 根本적으로 다른 것은 言及할 必要도 없다.

自尊 自慢心이 度を 넘으면 利己心이나 自己中心으로 事物을 判斷하기 쉽고 功만 앞세우고 自己의 虛點만 쫓혀 돌보지 않기 마련이다. Coriolanus 亦是 처음에는 純粹한 憂國의 情으로 軍人精神을 發揮하였겠지만 戰勝氣分은 그에게 자못 唯我獨存하는 自己陶醉의 地境까지 몰아넣게 된듯 하다.

結局 그의 외골인 自慢때문에 그는 反逆者로 몰려 祖國에서 追放되자 이들과 妥協할 것을 拒否한다.

You common cry of curs! whose breath I hate
As reek o' the rotten fens, whose loves I prize
As the dead carcasses of unburied men
That do corrupt my air, I banish you!

And here remain with your uncertainty.
 Let every feeble rumour shake your hearts!
 Your enemies, with nodding of their plumes,
 Fan you into despair! Have the power still
 To banish yow defenders; till at length
 Your ignorance, which finds not till it feels,
 making not reservation of yourselves,
 Still your own foes, deliver you, as most
 Abated captives, to some nation
 That won you without blows! Despising,
 For you, city, thus I turn my back:
 There is a world elsewhere.

(III. 3. 122~137)

Coriolanus에게는 背恩亡德하는 祖國同胞를 등지고 먼 세상을 찾아 나서며 하는 마지막 말이라 하지만 온 國民을 敵으로 돌리고 阻叱하는 것은 비록 그가 國家를 守護하는 功이 至大하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困難할뿐더러 그의 앞날에는 다만 暗雲이 低迷하게 될 것이니, 前日에 擊退시킨 敵將을 찾아 聯合戰線을 形成하여 母國侵功을 企圖하니 이것이 思料分別 있는 者가 敢히 取할바가 아니며 萬一 그가 計劃한대로 成功한다 하여도 母國을 짓밟고 무슨 勝利를 얻을 것이며 失敗하면 自滅할 뿐이니 兩者 어느 것도 그를 英雄으로 다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피한듯 하다.

드디어 Roma의 陷落을 一步앞에 두게 되는데 옛 戰友이며 莫逆한 親舊인 Menenius, 上官인 Cominius 등이 나와 國民을 代身하여 哀願하지만 이를 冷酷하게 拒絕할 수 있었으나, 乃終에는 어머니, 妻, 아들 등 家族들이 哀願하며 特히 무릎을 꿇고 泣訴하는 어머니의 懇曲한 要請을 저버릴 수 없게 되어 Volsces軍에게 欺瞞과 背信을 하여 自身은 破滅의 길을 스스로 擇한다.

Now, good Aufidius,
 Were you in my stead, would you have heard
 A mother less or granted less, Aufidius?

(V. 3. 191~193)

이 말이 Aufidius에게 通할 理가 없고 結局 그는 Corioli市에서 刺殺되니 이 또한 irony로만 看過하기는 어렵다.

Though in this city he
Hath widow'd and unchilded many a one,
Which to this hour bewail the injury,
Yet he shall have a noble memory.

(V. 6. 152~155).

Coriolanus가 Roma의 名將으로서 卑屈한 態度를 보이지 않고 平素 어머니의 教訓도 저버리지 않으며 또한 Roma를 破壞하지도 않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擇한 것은 勇敢하고 名譽를 尊重하는 將軍다운 處身이라 하겠다.

結(Conclusion)

William Farnham이 指摘한 다음의 主張은 吟味할 價値가 있다 하겠다.

But there is that about the pride of her son which Volumnia is quite incapable of understanding. Though she sees clearly that it can keep him from gaining the highest honors in Rome, she does not see that it can also keep him from base time serving. It is more worthy of condemnation than she shows, but at the same time it is worthy of praise in a way that she does not even suspect.

(*Shakespeare's Tragic Frontier*. 1950
The Reader's Ency. of Sh. p. 150. L. 24~30)

Coriolanus은 過度한 自慢은 그의 生來의 本性에 屬하는 것이며 어머니의 教訓으로 완전히 矯正할 수는 없다고 한 것으로, 이 論法의 贊否는 速斷하기 어려우나 Coriolanus는 이 世上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教訓을 많이 받았다고 自認하는 바인데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닌 天性만은 是正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教育全般에도 미치는 말로 그 實은 이 말의 相當 部分이 옳다고 同調하는 사람도 많다. 後天的인 教育이 어느 程度 性稟을 涵養하고 知性을 啓發시킬 수 있는 것이 事實이나 全的으로 天性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는 데서다.

設或 Coriolanus에게 父母가 俱存하여 嚴親의 家訓이 있었다면 事態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結果는 同一하였을 것이며, Volumnia가 바랐던 것은 아들이 最高位를 獲得한 後 이것을 長久히 간직할 것을 바랐지 直刻 背叛者의 烙印에 찍혀 國外追放되는 꼴을 보려

하지 않았을 터인데 Coriolanus는 名譽一念으로 他人과 妥協이나 協調하는 일은 體面이나 威嚴을 毀損시키는 것으로만 여겨왔으니 災殃을 自招한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Coriolanus의 悲劇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싹트고 있었고 더욱 어머니의 敎訓을 따라 믿을 수 있는 軍인이 됨으로서 어머니의 所願은 達成하였으나 그는 制御할 수 없는 乖離에 빠지고 만 데 있다고 하겠다.

Samuel Johnson은 *Characters of Shakespeare*(1817)에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였다.

The love of power in ourselves and the admiration of it in others are both natural to man; the one makes him a tyrant, the other a slave...

過度한 權力이 少數 內至는 一人에게 集中되었을 때 만드시 獨裁者가 誕生하게 되는데 이러한 獨裁가 存續되려면 또한 이에게 順從 盲從하며 阿附 阿諂을 일삼는 從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古今同一한 것이다.

Coriolanus는 國家에 至大한 功獻을 한 將軍으로 宜當 執政官으로 Roma를 統治해야만 할 充分한 資質과 權勢가 賦與되었으나, 그에게는 痼疾的인 名譽心 때문에 오히려 祖國에서의 追放이라는 不名譽를 지녀야만 했다.

이에 挫折함이 없이 敵將과 結托하여 捲土重來하고 報復도 하려할 때 난데 없는 支障에 부딪치니 여기서 進擊은 멈추고 自退自滅의 길을 擇하게 되니 이는 人爲的이라기 보다는 天道라고도 생각된다. Coriolanus가 바랐던 祖國侵略은 한 個人의 所願일지는 몰라도 天意는 이를 許諾하지 않았던 模樣이다. 그가 말한

His nature is too noble for the world (Ⅲ. i 254)는 그를 잘 알고 好評한 것 같다.

Shakspeare도 이 劇을 執筆함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大輿論이나 農民反亂 또는 民主革命과 같은 것을 念頭に 두지는 않은 것같고 다만 惡行으로 王位를 篡奪한 Macbeth와는 달리 믿음직한 將軍으로 國家守護에 功이 至大한 사람도 그의 習性이나 天性的 缺陷이 있으면 그것이 大衆에게 容納될 수 없고 지나친 自尊 名譽心이 自身을 破滅시킨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있다.

偉大한 사람이나 英雄들은 말할 것도 없고 凡夫 無名人이라도 그의 所

願의 한 두가지가 成就될 수 있는 것이 또한 人間의 참모습이라 하겠다. 行動과 思索이 均衡調節할 수 있고 清濁併呑할 수 있는 사람이 理想의 人間型이라는 것도 이런 事由에서 나온듯 싶다.

參 考 書 籍

- T.J.B. Spencer: *Shakespeare's Plutarch*. Penguin Books.
- Maurice Charney: *Shakespeare's Roman Plays*. Harvard Univ. Press, Cambridge, 1963.
- Harold S. Wilson: *On the Design of Shakesperian Tragedy*. Univ. of Toronto Press.
- Glynne Wickham: *Shakespeare's Dramatic Heritage*.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 A.L. Rowse: *William Shakespeare a Biography*. Macmillan & Co., London, 1963.
- William Rosen: *Shakespeare and the Craft of Tragedy*. Harvard Univ., Press, 1967.
- Leonard F. Dean. *Shakespeare: Modern Essays in Criticism*. Oxford Univ. Press.
- Laurence Lerner: *Shakespeare's Tragedies*. a Pelican Original.
- Theodore Spencer: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Man*. Macmillan Company.
- The Shakespeare Association of America: *Shakespeare Quarterley*
 Vol. XII, No. 2
 Vol. X, No. 1
 Vol. XIV, No. 2
 Vol. XXVI, No. 2
 Vol. XIII, No. 2
 Vol. IX, No. 3
 Vol. XIII, No. 1
- Derex Traversi: *Shakespeare The Roman Plays*. Hollis and Carter, London.
- Campbell and Quinn: *The Reader's Encyclopedia of Shakespeare*

- Thomas Y. Crowell Company, New York.
- Keuneth Muir: *Shakespeare's Sources*. Methuen & Co. London.
- E.K. Chaubens: *Shakespeare. A Survey* A. Dramabook.
- Reuneth Muir: *Shakespeare's Tragic Sequence*. Hutchinson Univ. Library.
- Mark Van Doren: *Shakespeare*. Henry Holt and Company, New York.
- Eaward P. Vandiver, Jr: *Highights of Shakespeare's Plays*. Baron's Educational Series, Inc.
- F.E. Halliday: *Shakespeare and His Critics*. Schocken Books, New York.
- Peter Alexander: *Studies in Shakespeare*. Oxford Paperbooks.
- Edward Dowden: *Shakespeare: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nd Art*. Capricorn Books, New York, 1962.

